

## 도 덕 심

- 떳떳한 한국인의 안방을 여는 날에.....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전통적 규범이나 정신만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양심은 어느 사회의 문화에 한정해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시대 정신에만 지배되는 것도 아니다. 양심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작용하는 인간다움을 밝히는 척도이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태를 가리켜 「양심이 마비된 세상」이라고도 한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분별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양심은 인격이 고매한 성인과 군자를 통해 그 표본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만 평범한 인간 모두가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지나친 이상주의이거나 아니면 고질적 결백주의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단지 평범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어기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아마도, 「나는 누구도 속이지를 않았고, 탐내어 훔치지도 않았으며,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 남을 희생시키지도 않았고, 사회의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는 말일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의 양심에 따른 떳떳함은 성인 군자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잘못되어 가는 세태를 개탄할 때, 우리는 흔히 도덕이 타락하였고, 질서가 무너졌으며, 양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개탄들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모두가 성인이나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못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지

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할 뿐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므로 누구나 한 두 번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도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비 도덕적인 요령에 젖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은 나쁜 습관을 쉽게 배운다.

더우기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서 양심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굴욕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도덕 규범은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규범에 불과하다. 그런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잘 하고 수탈이나 횡령을 잘 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노리고 남을 희생시키는 일을 잘 하고, 법과 규칙을 어기는 자가 더 잘 사는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기 쉽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뜯어 먹고 사는 弱肉强食의 동물세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이 이와같은 동물상태의 집단에서 생활하면, 자신이 목적인 바를 손에 넣기가 어찌면 매우 쉬워진다. 그러나 그가 소속한 사회에는 인간다움을 가늠하는 척도가 없으므로 자신이 또 언제 누구로부터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조여 드는 불안감은 다시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낳고, 더욱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노리고 이를 고수하고자 한다. 이는 곧 도덕 질서가 파괴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며, 이 속에 사는 인간은 그 본질과 가치를 상실당하고 만다.

이것이 어떤 가상적인 사회를 두고 심심풀이로 상상해 보는 세태의 이야기이겠는가? 우리의 현실은 이와 무관하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의의 나라, 도덕을 숭상하던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사회 속에 살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이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가난의 탓이라고도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병리, 일제 하에서의 수탈, 6·25전쟁에 의한 피해 등 우리가 가난 속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준 역사적 요인들이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으므로, 어쩌면 가난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앗아갔는지도 모른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옛 성현의 말이 있고,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우리의 속담으로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핍박과 혼란, 가뭄이나 홍수로 농사를 그르친 때 草根木皮로 연명한 가난의 생활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이 한 두 번의 일이 아니었거늘, 어찌 인정과 의리를 지키고 예의와 범절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이룬 문화와 의식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난 날의 가난이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말을 믿기도 어렵거니와 우리의 국민성에 결함이 있다고 하기는 더욱 어렵다.

일제의 지배하에서 휩쓸려 들어간 제2차 세계대전과 불시에 일어난 6·25전쟁에 의해서 우리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던 상황을 겪었고, 해방 후의 전면적인 사회 제도의 변화와 충격적인 서구 문명의 홍수를 맞았으며,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 만능주의 의와 회오리 바람을 탄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도덕 질서로써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사회의 제도나 생활의 조건은 일시에 바뀔 수 있지만, 도덕적 질서란 한 사회에 쉽게 정착하기가 어렵다. 급변하는 사회의 도덕적 무질서가 동반한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적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란 반드시 성인이나 군자만이 사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양심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를 뜻한다. 단지 우리는 소박한 마음가짐과 간단한 규범을 성심껏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의 도덕적 질서

를 회복할 수가 있다. 속이지 않고 탐내어 흠치지 않으며,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남을 희생시키려 들지 않고, 사회의 규칙과 법을 어기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이 땅에서 실천에 옮기면, 우리 사회가 도덕 사회로 회복되는 것은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지도층의 솔선 수범이나 다짐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려는 의지와 정신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물리적 정리 작업도 오래지 않아 허사가 되어 버릴 것이다.

땃땃한 한국인, 그는 자신에게도 땃땃해야 하고 이웃에게도 남에게도 땃땃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땃땃하고 밖으로도 땃땃해야 한다.

옛날의 한국인은 대체로 책이나 뉴우스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인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아진 나라가 되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한국인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인의 생활권이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땅이 우리만의 생활터도 아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이 폐쇄적 사회 속의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숨쉬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따스한 인정과 안정된 문화 국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더우기 1986년의 올림픽 게임은 세계 인류가 벌이는 가장 큰 잔치이며, 이 잔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방」을 세계에 개방하게 된다. 지난 20여 년의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였지만, 그때는 도덕적 질서와 문화적 세련미와 국민적 덕성으로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해야 한다.

물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알팍한 행동과 쉽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걸치레의 생활이 아니라, 인정과 정직과 질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돕고 사는 인간미를 보여주는 국민이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국인과 더불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뢰감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땃땃하고 당당하며 장한 한국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